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發掘調査 諮問委員會 第194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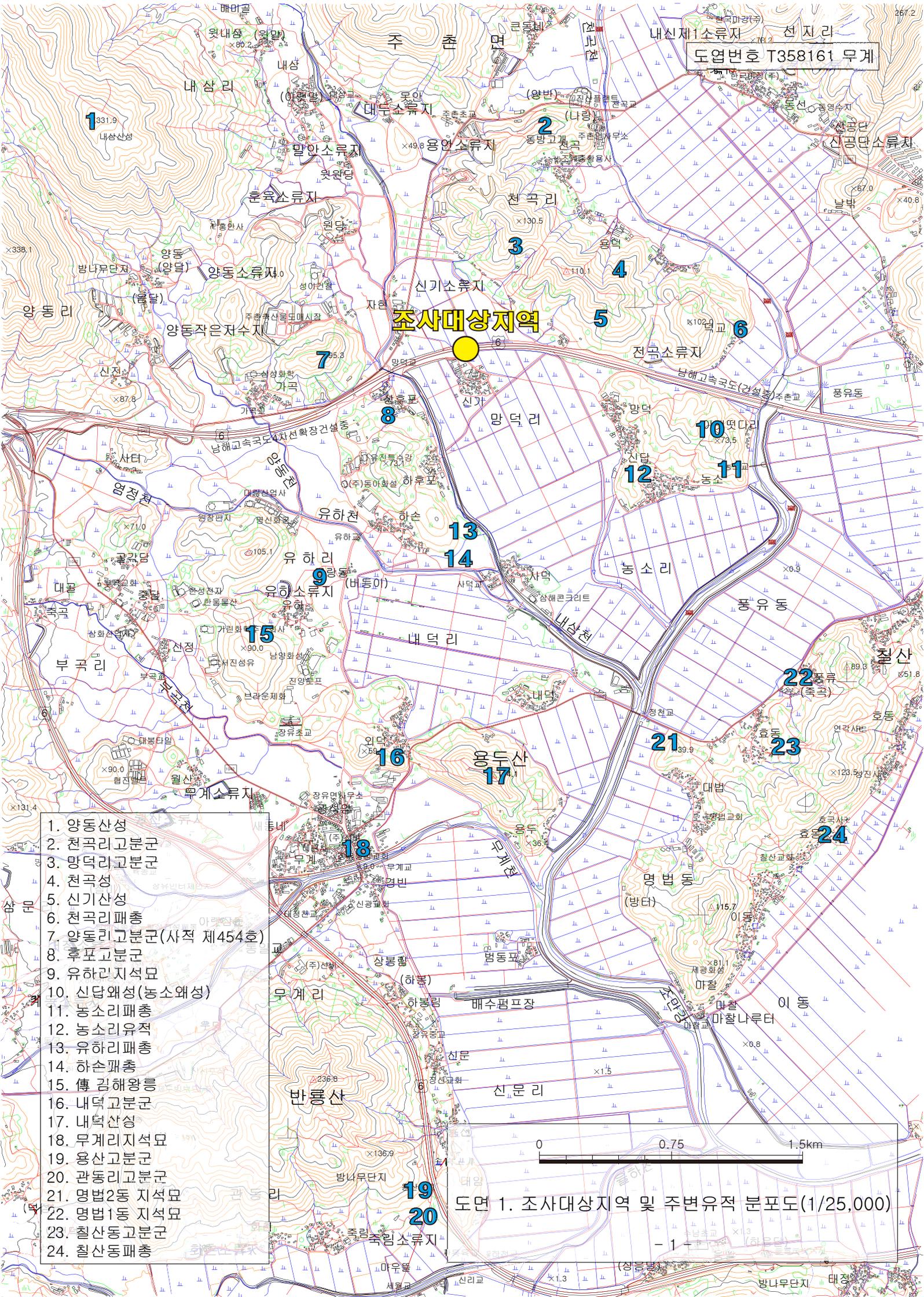
김해 냉정-부산 고속도로 확장구간내 유적  
發掘調査 諮問委員會

2010. 4



財團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法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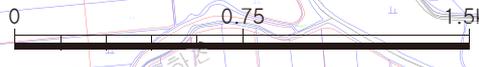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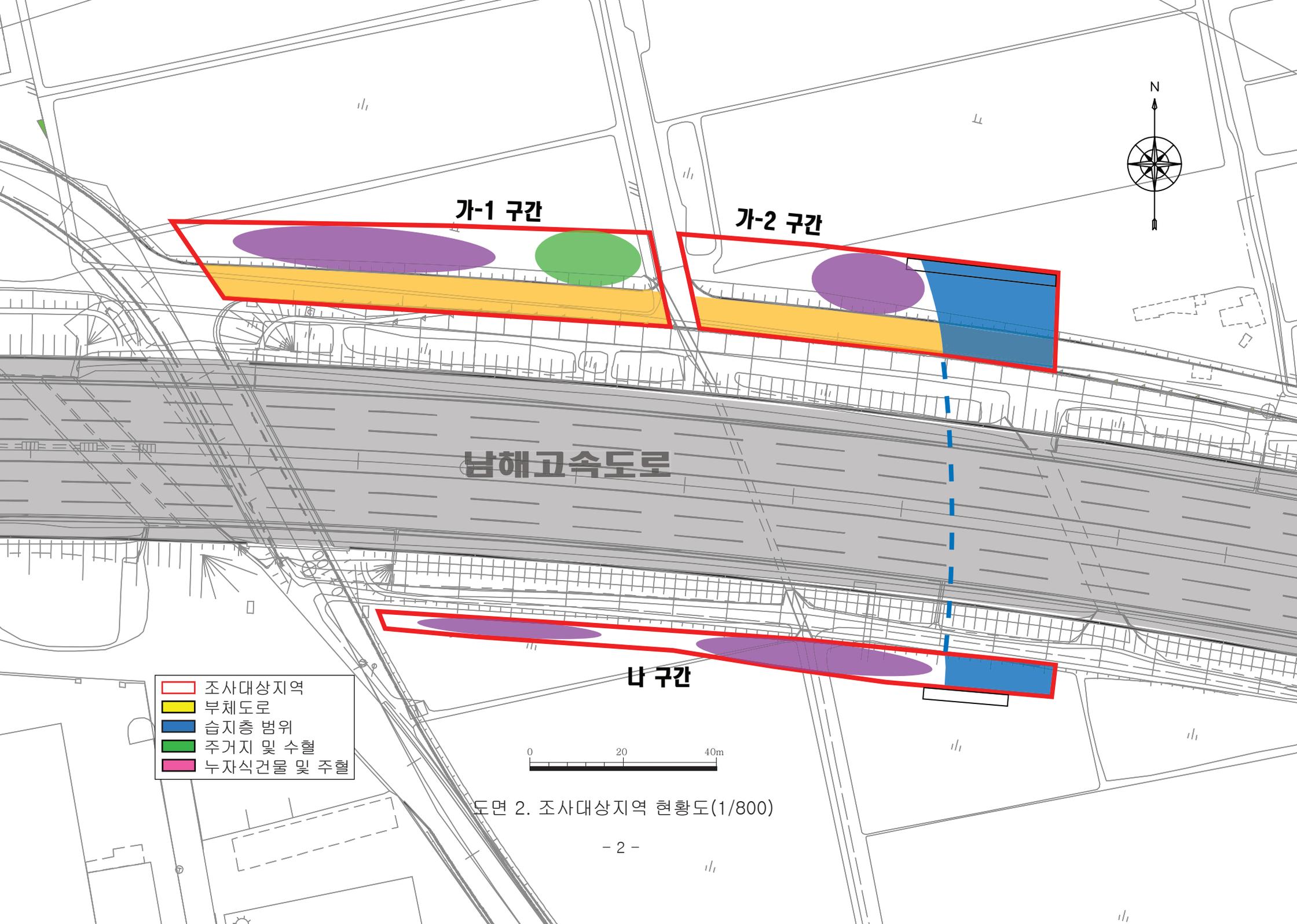
도엽번호 T358161 무계

**조사대상지역**

1. 양동산성
2. 천곡리고분군
3. 망덕리고분군
4. 천곡성
5. 신기산성
6. 천곡리패총
7. 양동리고분군(사적 제454호)
8. 후포고분군
9. 유태리지석묘
10. 신담왜성(농소왜성)
11. 농소리패총
12. 농소리유적
13. 유태리패총
14. 하순패총
15. 傳 김해왕릉
16. 내덕고분군
17. 내덕산성
18. 무계리지석묘
19. 용산고분군
20. 관동리고분군
21. 명법2동 지석묘
22. 명법1동 지석묘
23. 칠산동고분군
24. 칠산동패총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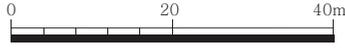
가-1 구간

가-2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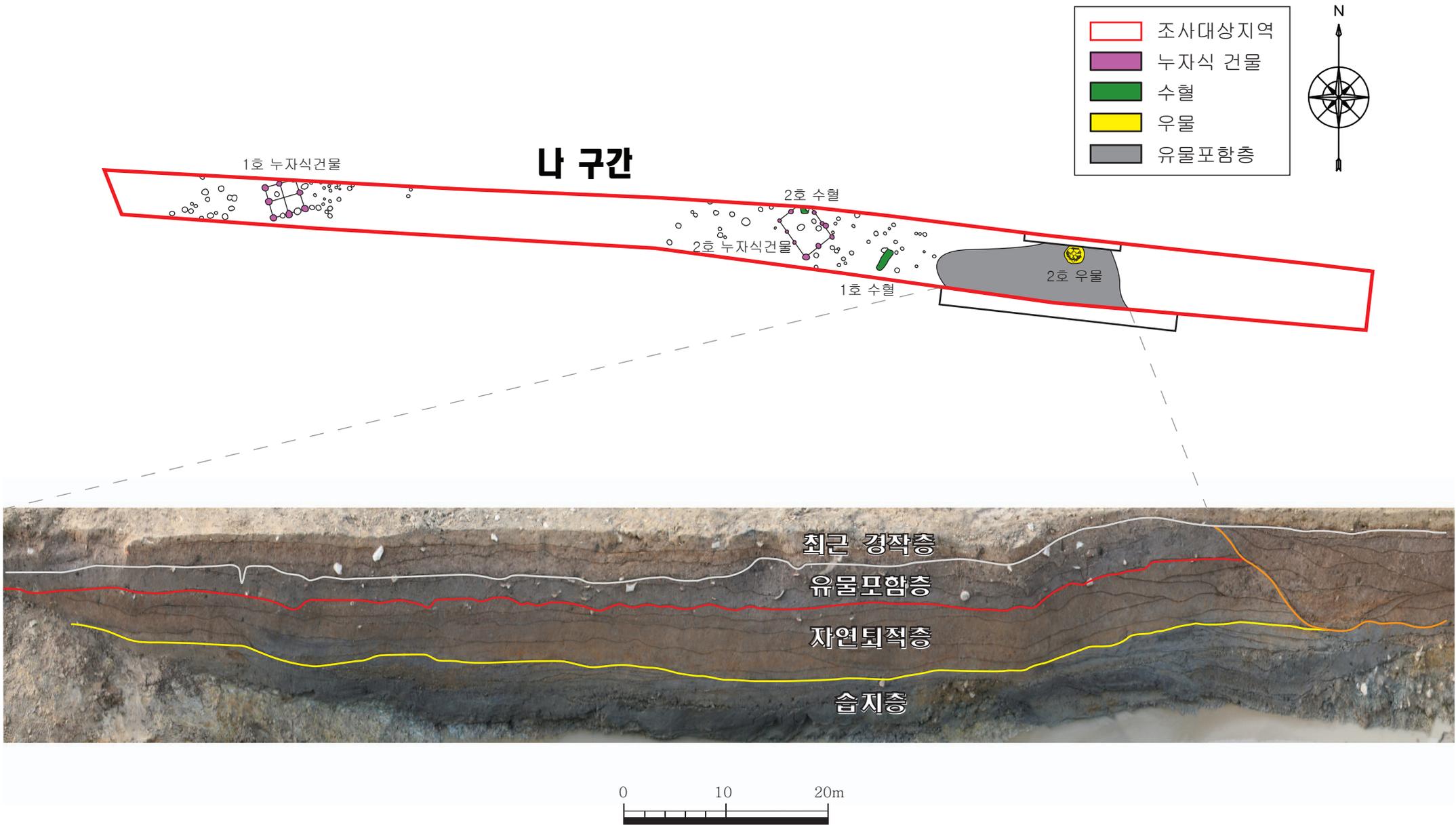
남해고속도로

나 구간

- 조사대상지역
- 부체도로
- 습지층 범위
- 주거지 및 수혈
- 누자식건물 및 주혈



도면 2. 조사대상지역 현황도(1/800)



도면 3. 조사대상지역(나구간) 유구배치도 및 기준토층도(1/500)

## I . 조사개요

### 1. 조사명

김해 냉정-부산 고속도로 확장구간내 유적

### 2. 조사대상지역 및 면적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일원(2,951㎡)

### 3. 조사기간

2010년 1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실조사일수 : 60일)

### 4. 조사기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5. 조사단 구성

조 사 단 장 :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단장)

자 문 위 원 : 정징원(부산대학교 명예교수)

박광춘(동아대학교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송의정(국립김해박물관장, 문화재전문위원)

책임조사원 :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조 사 원 : 이주성(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재홍(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조사보조원 : 이효석(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김진영(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6. 조사의뢰기관

한국도로공사

## II. 조사경위 및 목적

조사대상지역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일원의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김해 냉정-부산 고속도로 확장구간이다.(도로 총연장 25.24km) 상기 구간에 대해서는 2006년 9월 동서문화재연구원에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망덕리 신기유물산포지<sup>1)</sup>로 보고되었으며<sup>1)</sup> 2009년 7월 우리 연구원에서 발굴(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지와 수혈, 주혈 등의 유구와 회청색 경질토기편 및 적갈색 연질토기편 등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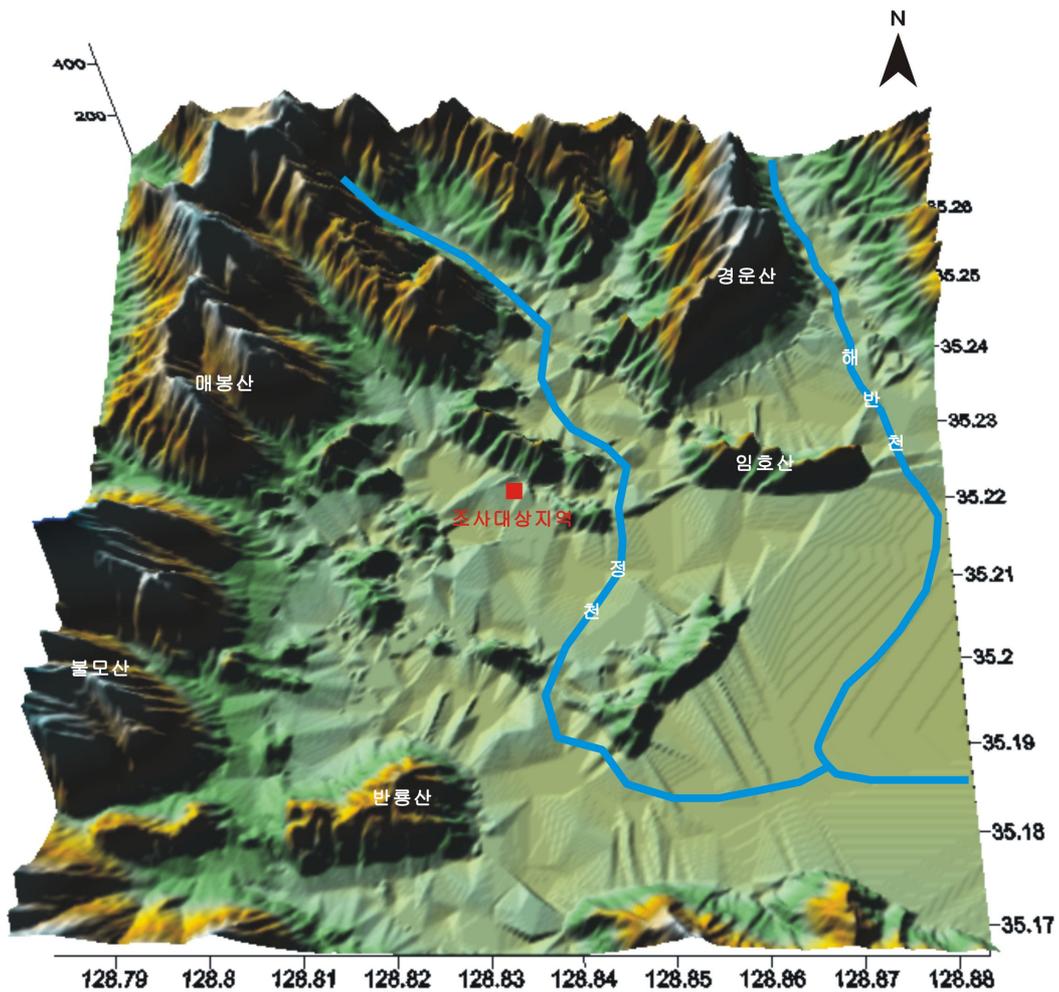
이와 같은 발굴(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본격적인 공사시행 이전에 우리 연구원에 발굴조사를 의뢰하여 2010년 1월 11일부터 실조사일수 60일간의 일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 이전 지연에 따른 부체도로 철거 지연 및 우천 등으로 인해 조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발굴(시굴)조사시 지장물 미철거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던 구간에서 저습지층이 약 300m<sup>2</sup> 면적으로 검출되었다. 따라서 공사의 시급성 및 추후의 조사진행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현재까지 조사된 구간을 대상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화재 보존 대책 수립 및 공사시행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 III. 조사대상지역의 자연환경 및 주변유적

### 1. 자연환경

경상남도 김해시는 한반도의 척추인 태백산맥의 말엽부에서 청도, 밀양 등지를 거쳐 북남방향으로 연속되어 뻗어오는 비교적 험준한 소산계의 일부와 남해로 유입되는 낙동강의 하구를 접하고 있다. 따라서 북부와 남서부는 험준한 산계가 발달하고, 남부 및 남동부에는 광대한 삼각주 충적평야가 발달한 산계와 평야의 복합지형을 이루고 있다. 조사대상지역인 김해시 주촌면은 소구릉들이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남동부에는 소지류가 발달하여 유역에 넓은 충적대지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방향의 하곡을 따라 낙동강에 합류한다. 이 중 망덕리는 소구릉들 사이의 분수령에 의해 형성된 선상지형 충적대지로서 해수면 변동에 의해 고김해만이 형성되었을 A.D. 250년경(1,700YBP)<sup>3)</sup>에는 해수면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으나 8세기 이후의 해수면의 하강과 정체로 인해 현재의 지형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1) 동서문화재연구원, 『남해고속도로(서김해IC-사상간) 확장사업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06.  
2)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고속국도 제 10·104호선 냉정~부산간 확장공사(제 1공구)내 문화유적 발굴(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2009.  
3) 윤선·장두곤, 『부산의 지사와 경관』, 1994.



도면 1. 조사대상지역의 광역지형도

## 2. 주변유적

### 1) 양동산성(良洞山城)<sup>4)</sup>

해발 332m의 산정에 위치하는 퇴피식 석축성이다. 석축의 규모는 높이 약 2.5m, 폭 2.5m, 둘레 약 800m이며 남북 성문에는 초석이 남아 있고, 성 안에는 우물이 잔존한다. 2008년 6월 26일~11월 7일까지 우리 연구원에서 복원정비에 따른 문화유적 발굴(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쪽 체성, 남문지, 북문지, 집수지, 건물지 4동이 조사되었다. 이 중 특징적인 시설로는 체성 외벽에 보이는 기단보축 시설과 수구, 현문식으로 구축된 남문지 및 북문지 측면의 호형구조, 내경 20×12m의 대형장방형 집수지 및 부속시설 등이다. 출토된 유물은 삼한~조선시대에 이르러 오래전부터 김해인들의 주요 생활무대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야시대 토기를

4)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金海 良洞山城 복원정비에 따른 문화유적 發掘(試掘)調査 現場說明會」, 2008.

비롯한 삼국시대 유물은 양동산성의 초축 및 운용시기를 파악 가능하게 하며 조선 시대의 자기류는 산성 운용의 하한 또는 폐기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되고 있다.

## 2) 천곡리고분군(泉谷里古墳群)<sup>5)</sup>

주촌면사무소 뒤편의 낮은 구릉 정상부와 동서 경사면에 걸쳐 고분군이 분포하며 남쪽에는 망덕리 신기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는 주택과 면사무소, 파출소 등 행정기관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도굴이 행해지고 있다. 도굴 구덩이는 구릉 사면 전체에 걸쳐 관찰되며 파괴 상태도 매우 심각하다.

## 3) 망덕리고분군(望德里古墳群)<sup>6)</sup>

망덕리고분군 앞에는 좁은 평야가 있고, 평야 너머 서쪽에 양동산성, 서남쪽에는 양동리고분군이 위치한다. 이 고분군의 서쪽과 남서쪽 사면 말단부는 (주)에이스브이의 공장신축부지로서 2008년 7월 7일~10월 30일까지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국시대의 목곽(관)묘 89기, 석관묘 19기, 옹관묘 2기와 조선시대 이후의 축대로 판단되는 석렬유구 1기, 분묘 16기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물은 지표면과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삼국시대 고배편, 기대편, 적갈색 연질토기편 및 조선시대 분청사기, 백자 등이 수습되었다. 수습된 유물로 보아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는 4세기 초반에서 4세기 후반대에 조성되었으며 조선시대 분묘는 15세기에서 근대까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망덕리고분군은 사적 제 454호인 양동리고분군과 직선거리로 약 1km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입지적인 조건 또한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주변에는 후포고분군, 천곡리고분군, 원지리고분군 등 가야시기의 고분군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낙동강 하류역 가야 사회의 성장 과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된다.

## 4) 천곡성(泉谷城)<sup>7)</sup>

가락국때 축조된 성이라고 전하며 자연지세를 활용하여 성을 축조하였다. 서북에서 동남으로 뻗은 곳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약 1.8m가량 ‘弓形’으로 흙을 쌓았다. 동부 곡간부는 계단상의 석축이었으나 모두 붕괴되어 돌무지를 이루고 있다.

5) 東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 金海市』, 1998.

6) 경남문화재연구원, 「김해 망덕리 공장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2008.

7) 東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 金海市』, 1998.

### 5) 신기산성(新基山城)<sup>8)</sup>

주변에 망덕리고분군과 천곡리고분군, 용덕패총과 농소패총이 분포하고 있다. 성은 산 정상부를 감싸고 있는 퇴피식 산성으로서 외곽 사면은 비교적 경사가 급하다. 북쪽과 서쪽은 산의 능선 정상부를 따라 토성을 쌓고, 남쪽과 동쪽은 해발 75m 지점 아래쪽에 석축하였다. 유물은 정상부 가까운 곳에서 가야토기편이 수습되었으나 성과의 관련유무는 확실하지 않다. 산성의 석축부는 대부분 파괴되어 그 윤곽만을 확인할 수 있으나 토성부는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 6) 천곡리패총(泉谷里貝塚)<sup>9)</sup>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용덕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나 농로를 만들면서 패각층이 훼손되었다. 정식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단사점열문토기와 이중구연 토기편이 수습된 바 있어 신석기시대 후기에서 말기단계로 추정하고 있다.

### 7) 양동리고분군(良洞里古墳群, 사적 제454호)<sup>10)</sup>

기원전 2세기대 부터 기원후 5세기대에 걸쳐 형성된 고분군으로서 발굴조사 결과, 다양한 묘제와 수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가야 국가 형성기부터 발전기의 역사적 사실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다. 일찍부터 김해지역 중심고분군의 하나로 주목받은 곳으로서 1984년 문화재연구소와 1990~1996년까지 4차에 걸친 동의대학교박물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목관묘, 목곽묘, 옹관묘 등 550여기의 유구와 토기, 청동기, 철기 등 5,100여점에 이르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확인된 유구는 묘제의 변천과정과 연대규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출토된 각종 유물은 시기별 가야문화의 실상을 한 눈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국제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 8) 후포고분군(後浦古墳群)<sup>11)</sup>

양동리고분군과 하손패총의 중간 지점인 유하리 후포마을에 위치한다. 곳곳에 도굴구덩이와 개석과 석실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데, 이를 참고할 때, 석실묘로 추정된다. 지표에 흩어져 있는 유물들은 대부분 경질토기편이며 인근에 있는 양동리고

8) 東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 金海市』, 1998.

9) 東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 金海市』, 1998.

10) 東義大學校博物館, 『金海 良洞里 古墳群』, 2008.

11) 東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 金海市』, 1998.

분군보다는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9) 유타리지석묘(柳下里支石墓)<sup>12)</sup>

장유면 유타리 하손마을에서 장유면 소재지로 가는 지방도로 우측 논 가운데에 위치하며 주변은 모두 논으로 경작되고 있어 쉽게 눈에 띈다. 개석식 지석묘로서 상석의 규모는 길이 330cm, 너비 140cm, 높이 80cm 정도로 상당히 큰 편이며 장축방향은 동-서향이다. 현재 상석은 논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하부구조 파악이 어려우며 상석의 동쪽 끝부분에는 직경 3cm, 깊이 1.5cm 정도의 성혈이 2개 있다.

### 10) 신담왜성(농소왜성)<sup>13)</sup>

임진왜란때 죽도왜성(竹島倭城)의 뒤를 이어 축조하여 자성(子城)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 지세를 이용하여 장방형의 높은 대지를 만들고, 남변과 동변에 허술하게 석축한 흔적이 약 500m 정도 남아 있으나 공동묘지 조성으로 점차 파괴되고 있다.

### 11) 농소리패총(農所里貝塚)<sup>14)</sup>

농소리 마을 동쪽 끝 지점의 양수장 부근 아스팔트 도로변에 일부 패각이 노출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주변의 경지정리와 도로포장으로 대부분은 파괴되어 구릉 사면 부에만 일부 남아있다. 1964년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신석기시대 즐문토기, 타제석기, 골각기류, 무문토기 등이 출토되어 패총의 형성 시기는 신석기시대 후기로 추정되나 타날문토기도 수습되어 삼한시대의 생활유적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해지방의 패총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유적이다.

### 12) 농소리유적(農所里遺蹟)<sup>15)</sup>

남해고속도로 남쪽편의 독립구릉인 농소왜성 정상부에 위치한다. 2001년 경남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 결과, 구상유구 1기와 수혈 14기가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

12) 東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 金海市』, 1998.

13) 東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 金海市』, 1998.

14) 東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 金海市』, 1998.

15) 慶南文化財研究院, 『金海 農所里遺蹟』, 2004.

다. 1기의 구상유구는 동쪽과 서쪽 구릉의 연결부 중앙에 위치하여 주변을 조망하기 유리한 곳에 축조된 점과 내부에서 많은 토기편과 목탄 등이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의례 등과 관련된 시설로 추정하고 있다. 내부에서 출토된 토기는 대부분 적갈색 연질토기이며 일부 토기편에는 타날기법이 관찰된다.

### 13) 유하리패총(柳下里貝塚)<sup>16)</sup>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하손마을 뒷산의 남쪽 경사면에 위치하며 대합, 재첩, 굴, 소라 등의 패각과 적색, 갈색, 회색, 흑회색의 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이 패총은 정식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성격은 규명되지 않았으나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선사문화 규명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기타 주변유적 현황

번호	유적명	성격	시대	비고
14	하손패총	패총	삼한시대	
15	傳김해왕릉	고분	삼국시대	1984년 동의대학교박물관
16	내덕고분군	고분	삼국시대	
17	내덕산성	산성	삼국시대	
18	무계리지석묘	지석묘	청동기시대	도 기념물 제151호
19	용산고분군	고분	삼국시대	
20	관동리고분군	고분	삼국시대	
21	명법 2동 지석묘	지석묘	청동기시대	
22	명법 1동 지석묘	지석묘	청동기시대	
23	칠산동고분군	고분	삼국시대	1987·1988년 경성대학교박물관
24	칠산동패총	패총	원삼국시대	

16) 東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 金海市』, 1998.

## VI.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 1. 조사방법

조사대상지역은 신기마을과 망덕마을 사이의 경작지 일대로서 남해고속도로 상행선(마산방향)과 하행선(부산방향)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 중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구간은 최근까지 논과 밭, 전사로 사용되었으며 하행선 구간은 조정수채배와 논으로 경작되고 있었다. 발굴조사는 편의상 상행선 구간을 가-1구간, 가-2구간으로, 하행선 구간을 나구간으로 설정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시굴)조사시 지장물 미철거로 트렌치를 설치하지 못한 가-2구간의 토층확인을 위해 폭 1m의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였으며 그 외 구간은 유구가 확인되었던 문화층까지 전면제토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 2. 조사내용

발굴조사 결과, 가-1구간에서는 주거지, 주혈, 수혈, 구, 가-2구간에서는 주혈, 구와 함께 저습지층이 확인되었다. 나구간에서는 삼국시대 누자식건물 2동, 수혈 2기, 주혈 106개, 통일신라시대 우물 1기 등이 조사되었다. 금회 자문위원회의에서는 조사가 완료된 나구간의 조사성과를 중심으로 보고하고자 하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가구간은 현 상황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후, 추후 2차 자문위원회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 1) 가-1구간



도판 1. 가-1구간 전경(동-서)



도판 2. 가-1구간 전경(서-동)

상행선에 위치하는 가-1구간의 토층양상은 크게 현대경작층(회황갈색 사질점토)-기반층(황갈색 사질점토)으로 대별되는데, 주거지, 주혈, 수혈 등의 유구는 기반층인 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현재까지 조사된 유구는 가-1구간 동쪽부에 원형주거지 6동과 수혈 3기가 밀집 분포하는데, 이 중 5동의 원형주거지와 3기

의 수혈은 서로 중복되어 있고, 일부는 도로 및 조사경계 밖으로 연장되고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대체로 원형과 타원형이며 규모는 중복으로 인하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직경 250~400cm 정도이다. 내부토는 산화철이 혼입된 암갈색 사질 점토로서 목탄과 소토가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유물은 적갈색 연질토기 및 회청색 경질토기편, 시루 등이 출토된다.

그리고 가-1구간 서쪽부에는 주혈군과 구가 분포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판 3. 가-1구간 동쪽부 주거지, 수혈 전경(서-동)



도판 4. 가-1구간 서쪽부 주혈군 전경(동-서)

## 2) 가-2구간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한 발굴(시굴)조사 당시 3트렌치에서 4트렌치사이(가-2구간)는 옥수수 등의 농작물과 견사 등의 지장물 미철거로 인해 트렌치를 설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변의 3트렌치의 양상으로 볼 때, 표토직하에서 생토층이 노출되었으며 그 상면에 주혈이 설치되어 있어 수혈, 주혈 등의 단순 유구가 분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도판 5. 가-2구간 전경(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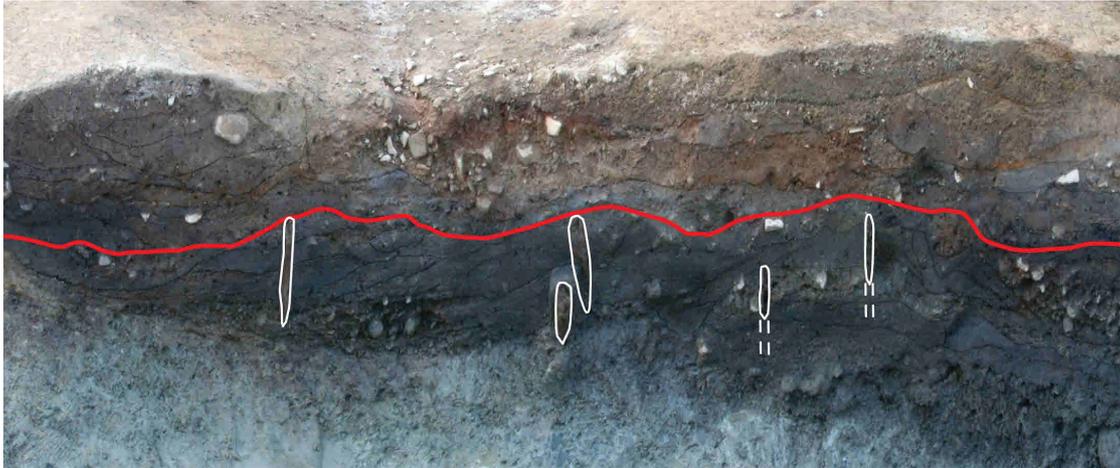


도판 6. 가-2구간 주혈군 전경(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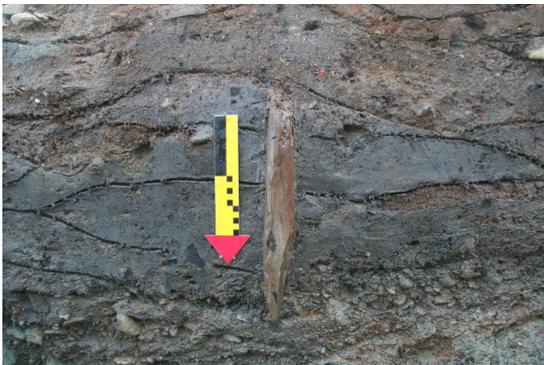
하지만 전면체토 후 발굴(시굴)조사시에 지장물 미철거로 인해 조사되지 못한 구간에 설치한 탐색트렌치에서 저습지층이 노출되었으며 저습지층 상부에는 지름

3~5cm의 소형목주와 10cm 내외의 목주가 잔존하고 있었다. 특히 소형목주의 경우 160c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목주가 박혀 있는 뿔층에서 완으로 추정되는 목태칠기 1점이 출토되었다. 목태칠기는 2/3이상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는 없지만 구연부 주변에 거치문 등의 복합문이 시문되어 있다.

저습지의 범위는 길이 20m, 너비 15m(면적 약 300㎡) 정도인데 저습지 조사는 층위별 제토와 함께 유기물질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유적에 비해 조사공정상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판 7. 가-2구간 저습지층 목주열 노출상태(북-남)



도판 8. 가-2구간 저습지층  
소형 목주 노출상태(북-남)



도판 9. 가-2구간 저습지층  
목태칠기 출토상태

### 3) 나구간

남해고속도로 하행선구간으로서 조사전 조경수 재배와 논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전체적인 지형은 가구간과 동일하게 서쪽부에는 기반층 위에 누자식건물, 주혈군 등이 구성되어 있고 동쪽부에는 저습지층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가-2구간의 저습지층과는 달리 목주의 설치나 유물 등이 출토되는 인위적인 사용면은 관찰되지 않으며 저습지층 상부는 자연퇴적층과 유물포함층이 형성되어 있다. 유물포함층에

는 단각고배편, 대호편 등의 경질토기와 적갈색 연질토기편 등 5~6세기대의 토기편들이 목탄, 소토와 함께 혼입되어 있으나 개체를 이루지는 않고 대부분 잔편인 상태로 출토되었다.



도판 10. 나구간 전경(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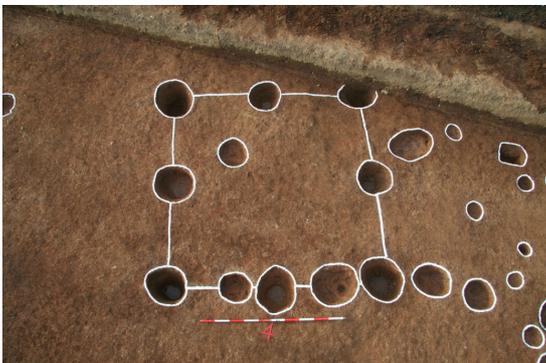
도판 11. 나구간 유물포함층 전경(서-동)

### (1) 누자식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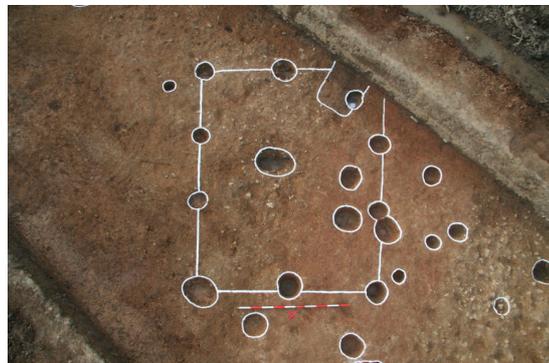
누자식건물은 2동이 조사되었으나 주변에 산재하는 주혈군들의 양상으로 볼 때, 더 많은 수의 누자식건물이 분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호 누자식건물은 나구간 서쪽 경계지점의 해발 5.9m 상에 조성되었으며 주변에 주혈군1이 군집하고 있다. 건물의 평면형태는 방형으로서 정면 2칸×측면 2칸의 무내주식 구조이다. 규모는 남-북 380cm, 동-서 400cm이며 주혈의 규모는 직경 45~60cm, 잔존깊이 30~50cm, 단면형태는 ‘U’자형이다. 주혈의 목주흔이 양호한 상태로 잔존하고 있으나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2호 누자식건물은 나구간 중앙부의 북쪽 경계지점 해발 5.2m 상에 조성된 장방형 건물이다. 정면 3칸×측면 2칸의 무내주식 구조이며 규모는 남-북 377cm, 동-서 475cm이다. 주혈의 평면형태는 원형 또는 타원형이며 직경 30~60cm, 잔존깊이 10~30cm, 단면형태는 ‘U’자형이다.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판 12. 나구간 1호 누자식건물(남-북)



도판 13. 나구간 2호 누자식건물(남동-북서)

## (2) 주혈군

나구간 서쪽부의 해발 5.2~6m 상에서 총 106개의 주혈이 조사되었다.

주혈군은 밀집양상에 따라 조사구역의 서쪽에 분포하는 것을 주혈군1, 동쪽을 주혈군2로 명명하였다. 조사 결과, 주혈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원형 또는 타원형이며 직경은 20~40cm 내외, 단면형태는 ‘U’자형으로서 주혈군1·2의 양상이 유사하다. 주혈은 누자식건물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조사구간이 협소하여 주혈의 평면 배치상태에서 뚜렷한 정연성은 보이지 않는다.



도판 14. 나구간 주혈군1 전경(동-서)



도판 15. 나구간 주혈군2 전경(서-동)

## (3) 우물

우물은 나구간의 동쪽부 유물포함층 상부에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북쪽편이 교란구에 의해 일부 유실되었지만 원형으로 추정된다. 우물의 토광 규모는 상부 직경 215cm, 하부 90cm, 깊이 115cm이며 벽석 최상단석은 직경 155cm, 최하단석 65cm로 상부를 2단으로 굴광한 上壙下狹형이다.

우물의 축조는 최하단에 15~20cm 정도 크기의 천석과 사질토를 바닥에 한 벌 칸 뒤, 40~50cm 정도 크기의 할석을 ‘세로세워쌓기’ 하였으며 상단은 15~30cm 정도 크기의 할석과 천석을 혼용하여 ‘허튼층쌓기’, 최상단은 40~50cm 정도 크기의 할석으로 ‘가로놓혀쌓기’ 하였다. 최상단석 주변으로는 10~20cm 크기의 할석과 천석을 깔았으나 상부 구조물은 잔존하지 않았다.

우물의 토층양상은 크게 갈색계열의 사질점토로 이루어진 2차 매립토와 흑회색계열의 점질토로 이루어진 1차 매립토, 침전에 의한 회청색 사질토로 구분된다. 유물은 바닥면에서 보주형 꼭지편 1점, 1차 매립토 내부에서 연질호편, 잔형토기 등의 토기류와 용도불명의 목기류, 복숭아 씨, 밤 등이 출토되었으며 1차 매립토 상부에서 경질완과 대각편이 출토되었다.

우물은 습지층 상부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우물의 깊이도 얕은 것으로 추정되며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통일신라시대에 인위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도판 16. 나구간 우물 노출상태(남-북)



도판 17. 나구간 우물 단면  
노출상태(북-남)



도판 18. 나구간 우물내  
보주형 꼭지편 출토상태



도판 19. 나구간 우물 출토  
목기류, 복숭아씨

## V. 조사성과 및 조사단 의견

1. 금번 조사대상지역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일원의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김해 냉정-부산 고속도로 확장 사업구간 중 망덕리 신기유물산포지I에 해당한다. 2006년 동서문화재연구원의 정밀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7월 우리 연구원에서 발굴(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국시대 주혈, 수혈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져 본격적인 공사시행에 앞서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발굴조사는 편의상 조사대상지역 사이를 관통하는 남해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상행선을 가-1·2구간, 하행선을 나구간으로 구분하였다. 현재 가-1·2구간은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나 부체도로 조성 및 전신주 철거지연 등으로 조사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번 자문위원회는 공사의 시급성을 요하는 나구간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3. 발굴조사 결과, 가-1구간에서는 주거지 6동, 수혈 5기, 주혈군 2개소, 가-2구간에서는 주혈군 1개소, 저습지층이 조사되었다. 이 중 주거지와 수혈은 복잡한 중복양상을 보이며 내부에서 외절구연고배, 유개고배 등 회청색 경질토기편 등이 출토되어 4~5세기대로 편년가능하다. 이는 동시기 경남지역 주거지들의 특징인 복잡한 중복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입지조건상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상호비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2구간의 저습지에서는 160cm 간격으로 배치된 소형목주열이 잔존하며 내부에서 목태칠기 1점이 출토되었다. 목주열을 등간격으로 배치한 점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창원 신방리저습유적과 부산 기장 고촌유적과의 유사성이 인지되며 추후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면 그 양상은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조사가 완료된 나구간에서는 삼국시대의 누자식건물 2동, 수혈 2기, 주혈 106개, 유물포함층과 통일신라시대의 우물 1기 등이 조사되었다. 유구의 구성 및 배치양상으로 볼 때, 가구간과 연장선상에 있다. 이 중 주혈군은 도로확장부에 국한되어 정연한 배치양상을 밝힐 수 없었지만 조사경계 밖으로 이어지며 유물포함층은 습지가 매립되고 난 뒤 인위적으로 지형을 평탄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 우물은 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단계에 조성되었는데, 내부의 토층양상, 유물 출토지점 등을 고려할 때, 인위적으로 매립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변에서 동시기의 유구는 조사되지 않았다.

4. 금번 조사대상지역은 저습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구는 생토면이 잔존하는 지점에 밀집 분포하지만 그 사이는 유수의 흐름으로 단절되고 있다. 이는 당시 유적 주변이 지속적인 유수의 영향 하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저습지와 함께 삼국시대의 김해지역 해수면 변동 및 주변 유적의 양상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면 당시의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금번에 조사된 주거지들은 북동쪽으로 약 400m 정도 이격되어 있는 망덕리고분군과 연계한다면, 생활유구와 매장유구의 조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이상을 종합할 때, 조사가 완료된 나구간은 중요유구가 조사되지 않았으며 기록보존을 철저히 완료하였기 때문에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구간의 저습지는 발굴(시굴)조사시 지장물 미철거로 트렌치를 설치하지 못하여 금번 발굴조사시 저습지에 대한 조사기간이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순차적으로 층위별 조사를 진행한다면 유구와 유물 등이 추가 조사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諮問委員會 第194輯

김해 냉정-부산 고속도로 확장구간내 유적

## 發掘調査 諮問委員會

---

인 쇄 일 / 2010년 3월 30일

발 행 일 / 2010년 3월 31일

編輯·發行 / 財團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法人

630-810 경남 마산시 양덕동 96-20  
동문빌딩

TEL : (055) 265-9150~3

FAX : (055) 265-9154

E-mail : [feaci03@hanmail.net](mailto:feaci03@hanmail.net)

---